

#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25.5% ↑

2015년 지역별 국제수지 흑자 1058억 7000만 달러  
 흑자 규모 동남아 15.6% ↓  
 중 19.5% ↓ · 미 17.4% ↓  
 중동·EU 적자 개선  
 일 21.8% 적자 증가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커졌지만 주요 무역국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내림세를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843억7000만 달러) 대비 25.5% 증가한 105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 경상수지 규모는 동남아(621억달러), 중국(451억4000만 달러), 미국(338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196억8000만 달러), 유럽연합(EU·-88억4000만 달러), 중동(-343억7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대 중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 56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560억6000만 달러로 줄었다가 2015년 451억4000만 달러에 그쳐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19.5%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343억3000만 달러)가 전년 대비 20.2% 축소된 데다, 서비스수지 흑자규모(33억7000만 달러)도 22.0% 줄어든 영향이다. 대 미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4년에는 전년(362억3000만 달러) 대비 13.1% 증가했으나 2015년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38억5000만 달러로 전년(409억9000만 달러)보다 17.4%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409억8000만 달러에서 338억5000만 달러로 17.4% 줄어든 가운데, 기타서비스업서비스와 운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동남아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2014년 735억 달러에서 2015년 621억 달러로 15.6% 줄었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599억5000만 달러)가 전년 대비 17.3% 축소된 여파로 분석됐다.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일본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161억6000만 달러)보다 21.8% 증가한 196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건강한 인터넷 세상 만들어요** 최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M스페이스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건강한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기' 거리 캠페인에 참석한 시민들이 선물을 강조하는 메모를 남기고 있다. 건강한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기 캠페인은 악플과 비난 보다는 칭찬과 응원의 댓글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수출이 감소한 탓에 전년(183억3000만 달러) 대비 19.0% 쪼그라든 148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중동과 EU에 대한 적자규모는 개선됐다.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2013년부터 2년째 중동을 대상으로 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됐다.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2014년 96.4달러에서 2015년 51.1달러로 45.3달러 인하됐다. 대 중동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13년 902억3000만 달러에서 2014년 799억4000만 달러로 11.4% 줄었다. 이후 2015년 343억7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7.0% 감소했다.

2013년 처음 적자를 낸 대 EU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도 전년 130억8000만 달러에서 88억40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18억7500만 달러에서 37억7300만 달러로 늘어난 영향이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과 부채의 차액) 증가는 전년 714억5000만 달러에서 976억8000만 달러로 36.8% 늘었다. 직접투자(226억 달러)와 증권투자(485억9000만 달러)가 각각 20.4%, 58.8%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계정을 산출할 때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자산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부채로 본다. /인진수 기자

## 프린터 '디지털화·보안'으로 돌파구

삼성 애플리케이션화 치중... 후지제록스 등 보안 공략

프린터·복합기 업체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사무실에서도 종이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프린터·복합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인공지능'과 '보안' 기능을 도입한 솔루션 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무 환경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프린터와 복합기 등도 솔루션 쪽으로 특화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추세다. 단순히 출력력과 복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각종 편집과 네트워크 허브 기능도 수행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프린팅 기기를 사용에 간편하도록 '해플라게이션'하는 데 치중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UX 센터'는 복합기·모바일 사무실의 프린팅 에코시스템 확대에 주력한 제품이다.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10.1인치 풀 터치 컬러 LCD 패널을 통해 복합기 기능을 30여개의 애플리케이션과 위젯으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팅 솔루션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출력·복사·스캔 등 복합기의 기본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문서와 인물·풍경 사진까지도 쉽게 편집할 수 있어 업무환경의 변화에 발맞췄다. 최근에는 기존 방식과 달리 팩스 전용 기기 1대와 얽만 있으면 다른 프린팅 기기들로 간편하게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디모트 팩스' 앱도 출시했다. 후지제록스는 보안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에게 최신 보안 이슈와 보안 강화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고 자사 솔루션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에도 도입 가능한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프린트와 모바일 출력 지원, 사용자 인증 출력 등으로 문서 보안과 업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리눅스 기반의 문서보안 솔루션 패키지 '신도 시큐얼'을 출시한 신도리코와 사진 계정과 비밀번호, 카드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허락된 사용자만 해당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환경을 갖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도 보안 관리에 뛰어난 사례다. /인진수 기자

## '단통법 위반 조사거부' LG유플러스 제재

방통위, 별도 안건으로 우선 처리... 과징금 50% 내 가중·과태료 부과 등 불가피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및 사실조사 거부 혐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행위를 별도 안건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권 불명명업, 불법 보조금 살포 등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단독 사실조사를 받게 되자

난 1~2일 양일간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자료제출 비협조가 단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로 확인되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노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피조사자가 법률적인 이유로 자료제

출을 지연한 유형"이라며 "일단 위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실조사 거부 등을 감인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과징금,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행사·노출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벌칙은 법인과 대표 등 개인도 함께 적용된다. 제재대상 개인은 담당 임원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아이폰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법정 최고한도인 8억원씩 부과했다. 이통 3사 법인과 영업·마케팅 담당 전원이 임원들도 고발했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도 신규 가입자·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7일간 금지하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도 일부 직원과 유통망이 방통위 조사관의 조사현장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했다가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다. /인진수 기자

## 카카오, 미디어 서비스 강화한다

포털 부문으로 분리... 루빅스로 개인별 맞춤 추천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를 비롯한 미디어 사업을 강화한다. 1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단일 조직이었던 서비스부문을 소셜부문과 포털부문 두개로 나누며 정보 유통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소셜 부문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프렌즈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부문은 다음뉴스와 카카오톡 채널 콘텐츠 서비스 등을 맡는다. 포털 부문이 새롭게 만들어진 점이 눈에 띈다. 포털 부문은 임선영 미디어콘텐츠팀 이사(부사장)가 이끈다. 임 부사장은 실시간 사용자 반응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루빅스(RUBICS) 시스템을 정교하게 정보 추천과 개인별 맞춤 추천(큐레이션)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다음 모바일에 적용된 루빅스는 실시간 이용자 기반 생방향

콘텐츠 추천 시스템(Real-time User Behavior-based Interactive Content recommender System)의 약자로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기계 학습으로 자동 맞춤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루빅스는 지난해 12월 이미지 뉴스를 포함해 다음 뉴스 모든 영역에 적용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루빅스 도입 1년이 안되어 첫 화면에 노출되는 뉴스 콘텐츠의 양이 3.5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루빅스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시사 뉴스, 사진 뉴스, 예능 콘텐츠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소셜 부문은 박창희 부사장이 담당한다. 박 부사장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프렌즈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반 플랫폰 서비스를 강화한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